

돈 몰리는 부동산... 광주 땅값도 '들썩'

개발 기대감에 남구 4.15%·서구 3.72%↑...전국 평균 상회 수도권 규제에 투자자 지방으로...거래량 전년비 11.4% 증가

올 들어 광주지역 아파트값 뿐 아니라 땅값도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라는 특수성에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에 이어 토지 시장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거래도 크게 늘었다.

◇광주, 아파트에 이어 땅값도 뛰어=국토교통부의 '2018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광주지역 땅값은 3.50%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3.34%)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뛰었다. 작년 3분기까지 누계(2.92%)보다 0.41%포인트 높고 올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지역은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광주(3.50%)로 집계됐다. 광주는 수도권인 경기(3.20%), 인천(2.42%)보다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드러냈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는 남구(4.15%)가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도 광전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주거 및 상업용 수요가 늘면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일대 땅값이 3.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땅값까지 오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전남지역 땅값 상승률은 2.80%로 지난

해 같은 기간(2.98%)보다 낮았다. 담양의 경우 첨단문화복합단지 분양 호조 및 원도 심할성화사업 추진 등에 따른 투자 수요 등으로 3분기까지 4.24% 올라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장성도 연구개발특구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올 들어 3분기까지 땅값이 3.83% 올랐다.

◇투자지도 몰려=지역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뿐 아니라 땅에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광주지역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분기까지 6만626필지로 전년 동기(5만4446필지) 대비 11.4%나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02필지·3만2458㎡) 청

약의 경우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며 1필지 입찰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가 하면, 낙찰가격이 공급예정가의 200%를 넘는 토지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방 토지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게 부동산시장 관측이다.

앞서, 한국감정원의 '2018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오피스 건물 가치도 전 분기 대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파트, 상가·오피스, 토지 등 광주 모든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등으로 경기도 파주(8.14%)와 강원도 고성(6.51%) 등 접경지역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효성중공업, 세계 최대 전력 공급 장치 설치 신영주·신충주 변전소에 자체 기술 400메가바급 스테콤

효성중공업이 한전 신영주·신충주 변전소에 각각 400메가바(Mvar)급 스테콤(STATCOM·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스테콤은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송전 효율을 높이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400메가바급은 단일 설비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신영주·신충주 변전소의 스테콤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보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스테콤에는 효성

이 자체 개발한 MMC(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기술이 적용돼 차세대 전력 기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한전측은 스테콤 설치로 기존 송전선로보다 송전 효율이 10%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일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30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도 예상된다.

효성중공업은 내년까지 동해 변전소와 신부평 변전소에도 대용량 스테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주택담보대출 7조원 넘었다

LTV 55.7%...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말 광주지역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담보대출 463조6000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 71조3천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6배로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약 10%)을 고려하면 전액

은 120조원을 넘는다.

광주지역의 경우 7조4559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집값과 비교한 LTV는 평균 55.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LTV는 53.4%다.

광주지역 대출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4년 말 5조7760억원 ▲2015년 말 6조7897억원 ▲2016년 말 6조9302억원 ▲2017년 말 7조455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조4217억원으로 LTV는 56.7%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소상공인도 희망장려금 지원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1만원 적립·복리이자 등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29일 이후 신규 가입자로,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희망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매달 납부하는 부금과 월 1만원(최대 12만원)을 시에서 적립해준다. 또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

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로도복권 (제83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6 16 18 37 38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060,528,750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38,634,915	80
3	5개 숫자 일치	1,442,948	2,142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6,206
5	3개 숫자 일치	5,000	1,764,071

수출, 감소세 전환 우려

자동차·가전·반도체 고전...광주 3분기 전년비 10.6%↓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만에 성장세로 반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출 실적이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28일 내놓은 '2018년 3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은 3분기

35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감소했다.

특히 주력업종인 자동차·타이어·냉장고 수출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1.1%가 줄면서 수출액이 12억1600만 달러에 머물렀고 반도체도 전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한 11억7900만 달러에 그쳤다. 냉장

고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에 경위 23.2%가 줄면서 2억2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의 판매 감소, 쏘울과 스포티지 등의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혔고 반도체는 수출 단가 하락과 싱가포르·중국 등 수출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냉장고도 해외 생산 확대와 경쟁 심화 등이 맞물리면서 두 자리수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광주 수출 실적은 107억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같은 기간 112억86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일각에서는 광주지역 주력업종인 자동차·타이어, 냉장고·반도체 등의 대외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올해 전체 수출 실적도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는 2014년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1.7%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로 반등한 바 있다.

한편, 전남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 호조에 힘입어 92억 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리수(13.2%) 증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